

## 상암동에 ‘첨단 차이나타운’ 조성키로 (서울신문 2000.09.02)

상암동에 ‘첨단 차이나타운’ 조성키로

[서울신문]2000-09-02 20 판 25 면 905 자 지역 뉴스

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설 서울 상암동에 중국계 화교자본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‘첨단 차이나타운’이 들어설 전망이다.

서울시는 최근 ‘서울 차이나타운 개발추진위원회’(위원장 양필승건국대학교수)로부터 상암동 디지털·미디어시티(DMC) 조성부지 가운데 3 만 5,000 평에 중국과 대만 동남아의 화교자본을 유치,첨단 정보산업과 부대시설을 망라한 신개념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전해왔다고 1 일 밝혔다.

개발추진위원회는

이곳에 대형 업무용 호텔과 첨단 정보산업단지,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음식점이나 중국상점이몰려있는 기존의 소규모 차이나타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.

또 이날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(中關村)기술단의 청화대학 기업집단 송권(宋軍) 총재 등 중국의 정보통신업계 대표 10 명도 이날서울시를 방문,고건(高建) 시장과 차이나타운 조성과 관련,의견을 나눴다.

차이나타운 건립계획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“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양해각서 체결이나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서울시는 지난 4 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 17 만 1,000 평을 오는 2010 년까지 미래형 정보도시인 DMC 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국내외에서

로드쇼를 갖는 등 적극적인선도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.

또 오는 11 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개발방향과입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서울시 관계자는 “상암동에 화교자본이 유입돼 대규모 첨단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경우 국내 벤처산업은 급성장할 것”이라며

“아울러 상암동이 최첨단 디지털미디어시티로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심재억기자 jeshim@kdaily.com